

# 마음의 힘

문남북 (경남 창원시 북면)

어느 날 갑자기 열이 나고 아파서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걸음도 걸을 수 없고 발바닥에 밟히는 모래도 전신을 자극할 정도로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백방으로 노력해도 차도는 없었다.

그러다 우연히 '구인사에 가서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는 소문을 들었다. 처음으로 집을 쟁겨 들고 문고 들어 구인사에 도착해 기도를 접수했다.

처음 기도 온 사람이 한 달 기도를 접수했다며 담당 스님이 허락하려 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런 것에 아랑곳 할 겨를이 없었다. 열심히 관세음보살을 목청 터져라 불러댔다. 높은 산 높은 허공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다. 옆에서 내 소리가 너무 커서 기도를 못하겠다고 나무라는 소리가 들렸다.

그렇게 일주일 가량 전심전력으로 병을 던져 버리기 위해 씨름을 했더니, 기진맥진하여 쓰러져 버렸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일어나니 온 몸이 물에 빠진 듯 젖어 있고 이불이 산을 이루고 있었다. 옆에서 기도하던 보살님들이 걱정하며 생각을 진하게 타서 먹고 이불을 겹겹이 덮어 줬다고 했다. 그 후로 엉덩이 부분에 엄지손가락 마디만한 큰 부스럼이 여럿게 돌아 나오더니 몸이 조금 개운해졌다.

그 후 기도 도중 환상을 봤다. 무덤 속 나무의자에 해골이 앉아 있다가 사다리를 타고 구멍을 헤치고 밖으로 기어 나오고 있었다. 환청도 들었다. 돌아가신 조사 스님이 지팡이로 땅을 세 번 짚었다. 광광광. 그런 경험을 하고난 후 아침 먹기 전에 적멸보궁에 기다시피 다녀오고 머리도 스스로 빗을 수 있었다.

기도로 건강을 회복했으니 그만큼 공덕을 짓고 싶은데 내겐 돈이 없었다. 병고로 병원에 쫓아다니느라 돈을 벌지 못했지가 오래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택한 것이 삼성각 복도 청소였다. 한 달 기도를 회향할

때 까지 청소를 하고나니 마음이 뿌듯했다. 그리고 조사전 건립하는데 마루 시주 80만 원을 외상으로 했다. 노스님께 '지금은 돈이 없으니 외상으로 받아달라'고 간청했더니 "어떻게 갚으려고"하면서 웃으셨다.

회향하고 집으로 돌아와 내내 시주 외상 때문에 걱정이 되었다. 어떻게 갚을까? 돈을 벌 방법도 없고, 때를 수도 없고... 걱정이 아픔도 잊어버릴 정도였다.

그러다 우연히 신문을 봤다. 이통에서 가정 방문 판매지 모집 광고였다. 사무실은 바로 우리 옆집에 있었다. 승산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쫓아가서 하겠다고 했다.

## 병 던져 버리기 위해 전심전력으로 기도 환상과 환청이 화두 깨치려는 작용임을 알아 마음 관하고 불교공부 할 수 있어 '행복'

걸음도 제대로 걸지 못하는 내가 판매에 나선 것이다.

그렇게 해, 드디어 외상 시주를 갚은 것은 물론 판매왕에 올라 황금열쇠도 받고 월급도 제일 많이 받고 잔급도 했다. 한 삼년 동안 해서 밀전을 마련했다. 밀전이 마련되면 그것으로 준비를 해서 출가를 해야 하는 계산이었다.

그 사이 한 달 기도를 두 번 정도 들어갔다. 두 번째 한 달 기도를 하던 중이었다. 관세음보살님을 한 번 부르는데 천년이 흐르는 듯 몸이 비틀거렸고 5분 동안에도 시계를 몇 번이나 들여다봤는지 모른다. 마음이 터질 것 같았다. 쏟아져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주위에서 알까봐 쓸을 수가 없었다. 그런 찰나 내 몸속에서 어떤 말이 들

려왔다. "이런 말들은 할 수가 없어. 주위에서 모르는 말로 대신하자." 그러곤 이상한 말이 쏟아져 나왔다. 처음에는 글자 한 자 한 자가 나오다 두자 석자 자꾸만 늘어가더니 나중엔 경을 읽는 듯 했다.

환상도 보였다. 두루마리에 펼쳐지는 글 없는 글을 입으로 외고 눈으로 글을 더듬었다. 시간 가는 줄도 몰랐고 고통도 잊었다. 기도시간이 끝나가는 줄도 모르고 그러고 있었다. 그때 기도 끝내는 목탁소리가 들렸다. 눈을 뜨니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았지만 몸이 상쾌했다. 큰스님이 "나오는 대로 해라 정신만 빼앗기지 말고"라고 말씀

해주셨다. 나는 시간을 잃어버리고 깊이 빠져서 했다. 해야만 했다. 걸으면서도 앉아서도 밥 먹을 때도 잘 때도 대화할 때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이상한 말이 입에 붙어서 떼어 버려 지지가 않았다. 아중 도서를 팔면서도 나 자신도 모르게 하고 있었다.

수없이 내뱉어지는 소리. 이것이 무엇일까?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따 미쳐 버리는 것은 아닐까? 끝은 어디일까? 이대로 계속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속에서 갈증과 불안이 뒤엉켜왔다. 스님을 붙잡고 "이런 행동을 계속 해도 됩니까?"라고 여쭙었지만 "그대로 하라"는 말씀 밖에 들을 수가 없었다. 더 이상 물어봐야 속 시원한 대답도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백학간다가 그

곳이었다. 한동안 억지로 누르기도 하고 간간히 하기도 하면서 일어난이 흘러갔다.

다시 한 달 기도를 들어갔다. 한참 관음기도를 하고 있는데 공중에서 한 줄기 빛이 나를 비추는 것을 봤다. 온몸이 떨렸다. 입에서 저절로 말이 나왔다. '앞으로 관세음보살님을 모시고 살 것이다'라고 같이 기도 왔던 어머니가 '정신저리라'며 나를 때렸다. 그 뒤로는 기도가 되지 않아 등 만드는 방에서 등만 만들다 기도를 회향하고 돌아왔다.

그리고 또 다시 기도에 들어갔다. 그때는 느긋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음이 말했다. "스님이 된다는 것은 좀 그래." 그러자 환청이 보였다. 가사장삼을 입은 내가 계단을 내려와 아귀벽화도 앞에 었는데. 거기서 목이 댕강 떨어져 버렸다. 어느새 다리 건너 리아카에 실리고 강물에 버려지고 강물에 시체와 리아카가 동중 떠내려가고 있었다. 이때 나는 모든 걸 잊었다. 이상한 말도, 관세음보살님도.

입에 아무 것도 붙지 않았다. 언덕에서 툭 떨어진 것 같은 느낌. 동그런 해가 바다에서 솟 솟은 느낌. 그런 느낌이랄까? 눈만 동그랗고 그 외엔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게 마냥 우두커니 앉아 있었던 것 같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기도 끝내는 목탁소리 음악소리가 들렸다. 그 후론 마음이 진전할 뿐 아무런 일이 없었다. 이상한 말들을 해 보려 시도해 보면 나오긴 해도 힘도 없고 시들했다. 모든 게 잠잠하고 답답하고 적적했다. 답답한 것도 아니고 편안하기도 나태하기도 긴장되지도 않았다. 좋지도 싫지도 않았다.

그 후로 몸은 많이 좋아져서 출가를 결심하고 보리정사라는 곳에 갔다. 그러나 온전한 몸이 아니어서 출가를 하지 못하고 여기 저기로 옮겨 다니다 결국은 지금의 토굴에 혼자 관음상을 모시고 기도하며 살고 있다.

기도 중에 나타난 이상한 말, 환청, 환상 등등은 모두 마음표현의 한 상태였다는 것을 지금은 안다. 그때 나는 관음정근을 하다가 '이것이 무엇일꼬?' '이렇고' 화두를 받아 이 화두를 깨치려 한 것은 아닌가 하고 어실골 결론을 내려 본다.

이제는 마음작용을 알았고 마음이 요상하게 변하는 것, 마음의 힘을 체험했다는 것을 안다. 이제 나는 홀로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고 만족하고 노력하며 살고 있다. 부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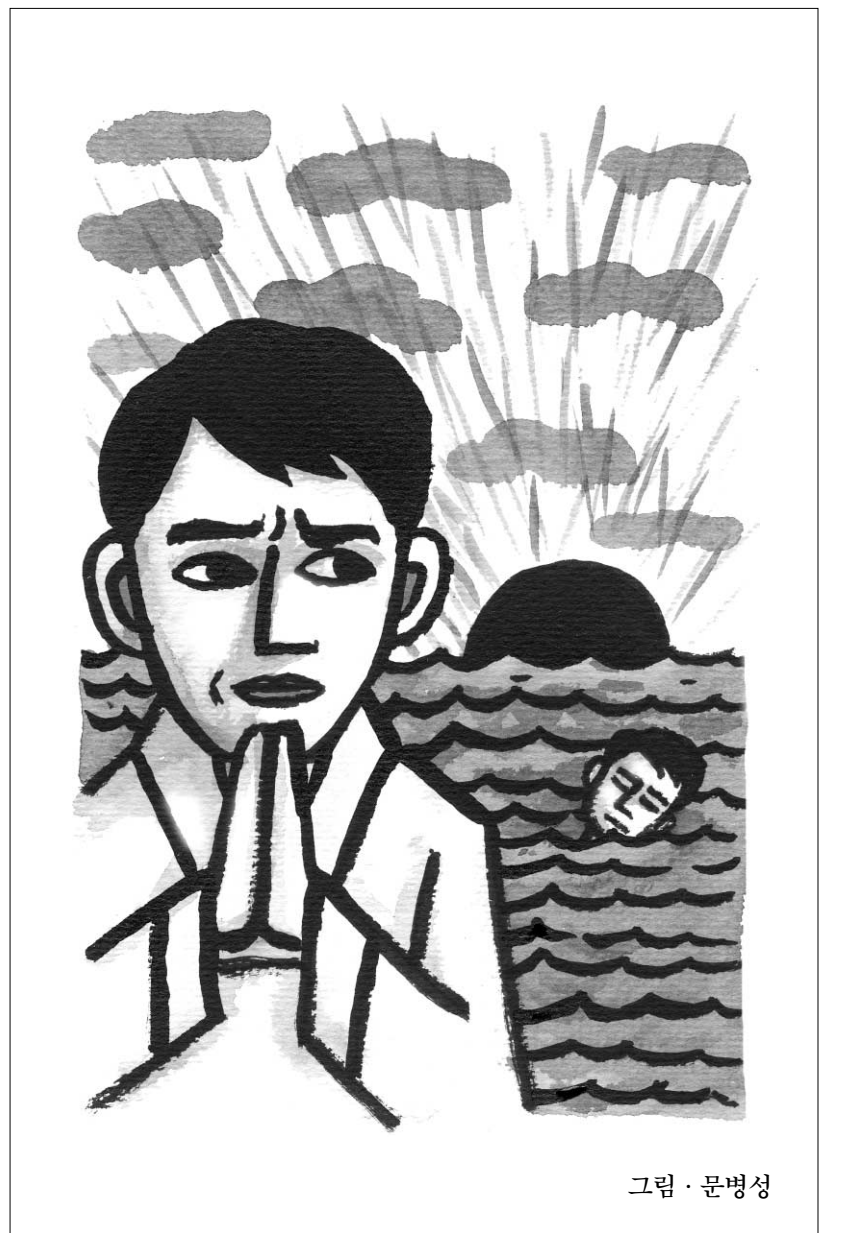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살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폭폭 담아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자를 소정의 교료를 드리고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41
- 인터넷 접수: bypark@buddhapia.com



**영험도량**

### 퇴마란?

현 시대는 남을 믿지 못하고 아무리 바빠 뛰어도 만족을 못하는 이기주의 현상으로 말법시대입니다. 자업 자득 법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은복이 소멸하면 고통이 따릅니다. 이 때 들어나는 것은 전생업마, 현생죄파, 죽은 사람마, 동물마, 미생물마, 기타등등이 마음의 장애가 끼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벌적이 있는자가 불보살님 힘을 얻어 마를 물리치는 것을 퇴마라합니다.

**연락처 031)736-3734 / 031)732-3790**

영가	빙의현상(이유)
조상영가	집착, 미련, 그리움, 애착 때문에
낙태	무서워 갈곳이 없어요
타영가	여기저기 다니며 놀고 싶어 왔어요
미물영가	너무 고통스러워 왔어요

야후 검색창에서 해원사 치세요

## 법주사

### 새해맞이. 성도절 겨울수련회

새해를 맞이하는 속리산 해맞이 행사와 성도절 철야정진 프로그램으로 자기 내면을 바라보고 새해를 설계 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삶의 바른 길을 이끄는 수행의 계기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1차: 2005년 12월 30일 - 2006년 1월 1일 (2박 3일 5만원)**  
불교수행과 새해를 맞이하는 속리산 해돋이 행사

**2차: 2006년 1월 2일 - 4일 (2박 3일 4만원)**  
초등학생을 위한 신나는 전통문화체험과 눈썰매장의 즐거움

**3차: 2006년 1월 6일 - 8일 (2박 3일 5만원)**  
성도제일 특별 철야정진 프로그램

접수방법: 법주사 홈페이지 [www.beopjusa.or.kr](http://www.beopjusa.or.kr) 수련회 신청서 작성

문의: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209번지/법주사 포교국 ☎ 043)543-3615 (일반부) 043)296-8255 (초등부)

수련생 준비물: 따뜻한 옷, 세면도구, 1차수련생(등산화, 손전등)

수련회비: 농협 403020-51-018392 법주사

**대한불교조계종 제5교구본사 속리산 법주사**

### 건학 100주년 기념

## 교사(校史)자료 수집

건학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명진학교 중앙불전, 해화전은, 동국대학교에 이르기까지 학교의 역사와 관련된 자료를 발굴, 수집, 전시함으로써 본교 100년의 역사와 전통에 걸맞는 동국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밀류동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수집기간 및 장소** 2006년 2월 28일까지 (3차) /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전시실

**수집 내용**

- ▶ 건학관련자료(1906년 전후 사진자료, 문헌자료)
  - **인물관련**: 이보갑, 김필재, 김우은, 박보봉, 김석중, 홍철호, 김보은, 김포용, 김현양, 한용운, 진진용, 박한영, 오성필 등 건학 및 학교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들
  - **사찰관련**: 명진학교에서 불교교당승사시기(중앙 및 지방학림) 원흥사(서울), 봉은사(광주), 봉선사(양주), 용주사(수원), 마곡사(광주), 속리사(보은), 송광사(순천), 금산사(금구), 해인사(함천), 통도사(양산), 동화사(대구), 월정사(명성), 유점사(고성), 석왕사(안동), 귀주사(함흥), 보현사(영변), 선광사(해주), 대웅사(문경), 남강사(상주), 용문사(예천), 명봉사(풍기), 광흥사(안동), 화암사(구례), 송광사(순천), 대원사(산청), 쌍계사(해운), 화강사(장단), 전동사(강화), 범사(보은), 위봉사(진천), 전복사(금산), 백암사(장성), 선암사(순주), 대흥사(해남), 감홍사(문경), 동화사(달성), 기림사(경주), 범어사(통재), 건봉사(간성), 패암사(신천), 성봉사(함주), 영명사(명주), 범종사(순천), 고운사(의성), 은혜사(영천), 천은사(구례), 태안사(곡성), 관음사(곡성)
  - **각종문서**: 결의문, 취지문, 상행서, 허가증, 인장(印章), 교훈(敎訓) 등
- ▶ 문헌자료
  - **도서 및 간행물**: 교재, 각 기관에서 발행한 도서 및 간행물
  - **문서, 훈간**: 공문서, 업무일지, 회의록, 대자보, 학생활동문건 등
  - **각종 증서류**: 학위증, 임용장, 학생증, 성적증명서, 강의시간표, 교직원명단 등
  - **인쇄 및 홍보물**: 다이어리, 달력, 카드, 팸플릿, 포스터, 강의노트, 성격기록표 등
- ▶ 기념품: 교표, 교기, 우승기, 우승기, 상패, 각종 행사기념품
- ▶ 복식자료: 교복, 교모, 체육복, 교련복, 학군단복, 실습복, 행사 티셔츠 등
- ▶ 사진자료: 학교전경, 수업장면, 앨범, 슬라이드, 필름 등
- ▶ 동문 및 교직원 기념자료: 휘호, 서예, 유품 등
- ▶ 집기 및 비품자료: 각종 인장, 현판 등
- ▶ 건학 및 교사자료와 관계있는 사람들의 연락처

**문의**

동국대학교 건학 100주년 기념 事務局, 중앙도서관 전시실  
Tel: (02)2260-8639~40, 8622 Fax: (02)2260-3450 E-mail: dgulib100@dongguk.ac.kr  
\* 자료는 기증자료는 출판권이 직접 무효로 승부하거나(취급), 혹은 소장하고 있는 장소를 통지해 주면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겠음


**동국대학교**  
건학 100주년 기념 사업회

## 간(肝)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덩과 비갈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인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명숙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일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055) 963-9583 · 상담문의: 055) 355-5626  
산마를 토종 (민속농원)